

신예 피아니스트들 첫 무대...클래식 봄바람

아르플레닛 '제1회 정기연주회' 내달 3일 靑丘문화전당
한 달만 전석 매진...구성원 8명 색채 반영 무대 구성
창단 1년만 6회 공연...“기획력·대중성 겸비 나아가길”

창단 1년 차에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며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는 광주 청년 클래식 예술단체 아르플레닛이 첫 공식 무대를 갖는다.

특히 연주회는 3월 4일 티켓 오픈 이후 약 한 달 만인 지난 6일 406석이 모두 매진돼 지역 클래식계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아르플레닛은 예매를 놓친 관객들을 위한 대기에매 점수를 공식 인스타그램 및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다.

클래식팬들의 관심을 모으는 단체는 아르플레닛(대표 최해지)으로 '제1회 정기연주회'를 앞두고 매진이라는 선물을 받은 셈이다. 이들의 첫 무대는 오는 5월 3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극장2에서 펼쳐진다.

아르플레닛은 전남대 음악대학 피아노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최해지씨가 2024년 설립한 단체로, 창단 이후 1년 만에 총 6회의 공연을 개최했으며 2건의 공공지원사업에 선정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연주회는 아르플레닛이 앞으로 이어갈 정기 공연 시리즈의 첫 시작을 알리는 무대로, 단체의 음악적 방향성과 구성원들의 색채를 집대성해 선보인다.

특히 올해 초 새롭게 모집한 2기 멤버들이 처음 참여하는 데뷔 무대이기도 하다. 경력이 단절됐다가 다시 무대로 돌아온 연주자, 지역을 떠났다 돌아와 활동을 이어가는 연주자 등 다양한 배경의 광주·전남 출신 피아니스트 8인이 폭넓은 레퍼토리를 바탕으로 다양한 음악적 해석을 선보인다.

먼저 유예름이 리스트의 '3개의 연주회용 에튀드' 중 '탄식'으로 막을 열고, 이서영이 베토벤의 '후기 소나타 31번'을 연주하며 서정성과 구조미를 선보인다.

진다영은 프로코피예프의 '피아노 소나타 3번'을 통해 강렬한 인상을, 김세연은 차이콥스키의 '돛카'로 러시아적 감성을 풀어낸다. 김민호

가 쇼팽의 '발라드 4번'으로 극적인 서사를 펼치고, 최설희는 바흐-부조니 '사콘느'로 깊이 있는 해석을 선보인다.

최해지 대표는 “클래식을 낯설지 않게 다양한 사람들과 오래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 왔고, 이번 첫 정기연주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내주신 것은 그 과정에 큰 의미를 더해줬다. 보내주신 마음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면서 “이번 공연을 시작으로 지역에 클래식의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가고 싶다. 대중성과 기획력을 겸비한 클래식 단체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최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청소년 진로탐색 교육프로 운영

도립미술관 '미술관 사람들' 확대

전남도립미술관은 청소년 대상 학교 연계 진로 탐색 교육 프로그램인 '미술관 사람들'을 올해도 운영한다. 지난해 운영한 '큐레이터'와 '전시 디자이너' 과정에 더해, 올해는 '컨서베이터(보존 전문가)' 과정을 신규 개설하며 프로그램을 확대했다.

'미술관 사람들'은 국립현대미술관 교육 사업의 하나로 전국 청소년들에게 수준 높은 미술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협력 프로그램이다. 전남도립미술관은 2024년부터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2 개정 교육과정 및 진로 탐색 중심의 교육 흐름을 반영해 개발했다.

올해 '미술관 사람들'은 △큐레이터 △전시 디자이너 △컨서베이터 등 총 3개 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참여 청소년들은 조별 활동을 통해 전시 기획, 디자인, 작품 복원 등 미술관 직무를 직·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된다. 이를 통해 미술관 내 다양한 전문 직업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미술관이 수행하는 교육·전시·보존 등 다양한 역할을 폭넓게 경험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 단체를 대상으로 6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운영된다. 참여를 원하는 학교는 세 과정 중 하나를 선택해 4월부터 11월까지 이메일 또는 공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교육 내용 및 모집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립미술관 누리집(artmuseum.jeonnam.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Delight’ 연작...색점 추상 작품세계 재조명

정송규 개인전 내달 25일까지 무등현대미술관

끊임없이 점을 찍는 행위로 존재의 이유 탐색

무등현대미술관 정송규 관장이 개인전을 지난 4일 개막, 오는 5월 25일까지 'Delight-환희를 향한 시간과 기억의 미학'이라는 타이틀로 갖는다.

이번 전시는 무수한 색점으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삶에 대한 기쁨을 표현한 정 관장의 색점 추상 작품세계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 관장이 200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작업해 온 총 100여점에 이르는 'Delight' 시리즈 중 29여 점을 출품했다.

정 관장은 'Delight' 시리즈를 통해 무수한 점으로 응축된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삶의 환희를 노래하고 싶다는 반응이다. 나이가 작은 점들이 모여 이루는 조화와 공존 그리고 삶에 대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집중한다.

정 관장은 작품을 통해 지나온 자신의 시간을 되돌아보고 지난날의 자신과 조우하며 자신의 'Delight'를 찾는 여정에 한걸음 더 다가가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

그는 '조각보'에서 'Delight'를 작업하며 작품 변화를 꾀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조각보가 갖는 조형성과 색의 조화, 정신을 탐구하며 조각보 시리즈를 작업했다. 이후 2000년대에는 조각보에서 작

안했던 색면과 공존하던 구상적 형태 대신 색면이 더 작은 점으로 치환되며 새로운 현대미술로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Delight' 시리즈를 선보이며 자신만의 독특한 작품 세계를 구현했다. 2001년 시작해 현재까지 100여점에 이르는 'Delight' 시리즈는 무수한 색점으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삶에 대한 기쁨을 표현해내고 있다.

박우리 학예연구사는 “작가는 고행하듯 끊임없이 점을 찍는 행위를 통해 존재의 이유와 시간의 의미를 함축해 작품에 담았다. 하나의 캔버스에 펼쳐진 많은 점들 중 같은 것은 없다. 어떤 점은 시름, 어떤 점은 기쁨 또 어떤 점은 기도와 처우였다. 자투리 천을 한 뼘 한 뼘 바느질로 이어 붙여 조각보를 만들 듯, 캔버스 가득 점으로서의 작은 네모를 한 칸 한 칸 이어 그리거나 고무지우개를 붓 삼아 점을 찍는 작가의 반복적 행위는 내면을 비우고 끊임없이 수양하여 환희에 다다르는 과정”이라면서 “잔란한 인생의 모음인 점들은 모두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그것이 하나로 집약되었을 때 비로소 무한으로 확장된 새로운 의미의 환희를 구현해 내는 것”이라고 평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Delight-만남’

작가는 'Delight' 시리즈를 통해 무수한 점으로 응축된 시간의 의미를 되새기고 삶의 환희를 노래하기를 희망하면서 작은 점들이 모여 이루는 조화와 공존 그리고 삶에 대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힘을 쓰고 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작업세계 심층 탐구...‘GB 작가탐방’ 기지개

광주비엔날레 ‘작가스튜디오탐방’ 오늘 첫 주자로 박치호 작가

(재)광주비엔날레(대표이사 직무대행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 이상갑) 마케팅교육부는 지난 4일 2025년도 'GB 작가탐방' 프로그램의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사전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2025년도 'GB 작가탐방'에 참여할 10명의 작가(김설아, 김신유주, 노유승, 박치호, 신호원, 윤준영, 이인성, 임수범, 정명숙, 전영록)와 4명의 협력공간(뽕뽕브릿지, 예술공간집, 호랑가시나무 아트폴리곤, 스페이스 DDF) 대표 등이 참석해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 방식과 향후 방향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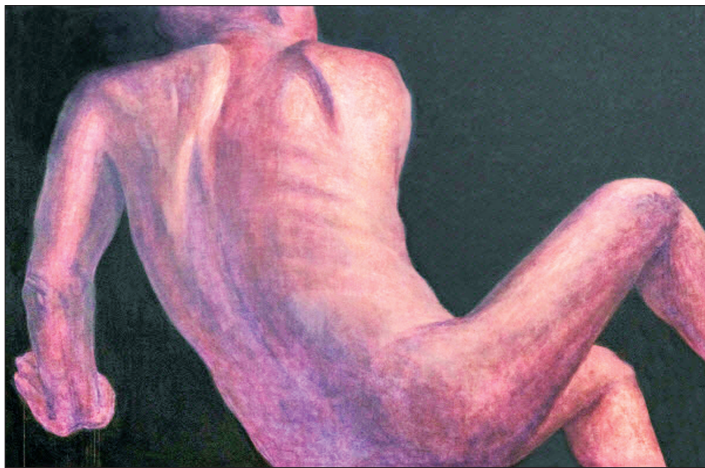
2018년부터 시작한 지역 밀착형 정기 프로그램 '유희회'의 하나로 진행되는 'GB 작가탐방'은 광주·전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작가의 작업 세계를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광주비엔날레 교육행사팀은 지난 두 달간 프로

그램에 참여할 기획자 및 작가, 문화예술 공간 대표들을 만나 기존 '작가스튜디오탐방'의 개선점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논의했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GB 작가탐방'을 새롭게 선보인다.

첫 번째 프로그램은 박치호 작가와 함께 14일 오후 4시 예술공간집(광주 동구 제봉로 158번 길)에서 진행한다. 이번 아티스트 토크는 몸을 확대된 덩어리처럼 화면에 채워 그려 인간의 서사와 삶의 내면을 조망하는 박치호 작가의 작업 세계를 들어본다. 작가는 추계예술대학교에서 동양화를 전공하고 1994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2013년 발표한 '시간, 공간, 그리고 인간' 시



박치호 작가



박치호 작 '붉은 몸'

리즈, 2020년 '망각' 시리즈 등 토로스, 두상 등 파편화 된 신체로 소재로 회화 작업을 이어왔다. 작가가 그린 누군가의 몸은 시대를 살아온 우리와 개인의 축적된 기억, 삶의 흔적을 들여다보게 한다.

박치호 작가와의 대화는 비영리 큐레토리얼 프라티머리 프랙티스(Primary Practice)의 김성우 큐레이터가 이끌어갈 예정이다. 김성우 큐

레이터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아마도예술공간 책임큐레이터로 활동했으며, 2018년 제12회 광주비엔날레 '상상된 경계들' 주제전 '생존의 기술: 집결하기, 지속하기, 변화하기'의 공동 큐레이터로도 참여한 바 있다.

지역 문화예술 생태계의 지속성을 도모하는 'GB 작가탐방'은 14일 박치호 작가를 시작으로 올해 11월까지 매달 1회 이상 다양한 작가들과 함께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사전 신청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과 정보는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프로그램 종료 이후 박치호 작가 인터뷰 영상이 광주비엔날레 공식 유튜브 채널에 공개될 예정이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CULTURE

2025년 4월 14일 월요일

‘시간을 칠하는 사람’ 영국서 공연

ACC재단, 80년 오일 광주이야기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 사장 김선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대표 연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을 서울과 영국, 일본 등에 유통한다.

지난 2018년 첫 선을 보인 연극 ‘시간을 칠하는 사람’은 5·18 민주화운동의 최후 항전자인 전남도청 건물에 얽힌 한 가족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1980년 오일 광주의 이야기를 담았다.

특히 초연 당시 가변형 극장인 전당의 극장1 공간의 이점을 활용한 음악적 해석을 설치해 화제를 모았다.

실내 극장용으로 만들어진 ‘시간을 칠하는 사람’은 지난 2022년 야외극장으로 다시 제작해 경남 밀양과 진주 등 전국 순회공연을 펼쳐 관람객들에게 큰 호평을 받았다.

또 지난해에는 원작의 변의 작품을 만들어 서울에서 장기간 공연을 펼치는 등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보여며 관람객과 공연 관계자들로부터 찬사를 받기도 했다.

‘시간을 칠하는 사람’은 지난 3~5일 서울 창작연극센터 개관 페스티벌 참여를 시작으로 10일과 11일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강북 4·19 연극제에 참여하며 본격적인 유통을 시작했다.

또 올해는 영국과 일본 등 국제무대에서 공연을 선보이며 해외 유통에 시동을 건다.

특히 이 작품은 올해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의 ‘코리아시즌’ 공연으로 선정돼 오는 8월 한 달 동안 어셈블리 극장에서 총 24회 장기 공연을 진행한다.

이어 9월에는 일본 메세토 연극제에서 해외 관람객들을 만날 예정이다.

김선옥 사장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대표 공연인 ‘시간을 칠하는 사람’이 국내외 관객들과 만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면서 “앞으로도 한국과 아시아 문화를 담은 다양한 형태의 공연을 세계에 선보이도록 유통 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

전남문화재단, 청년 문화 활동가 모집

문화기획자 프로젝트...23일까지 접수

전남문화재단(대표이사 김은영)은 문화 기획자 프로젝트 활동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 문제 완화 모델을 같이 풀어갈 청년 활동가를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모집한다.

청년 문화기획자 프로젝트 '사회적 가치 지향'은 2023년 '사회적 가치 지향 시즌1'을 시작으로 올해 세 번째 시즌을 맞았다.

그동안 사회적 가치 지향을 목표로 '농촌쓰레기 예술이 되다' 프로젝트, '청년 마을 이장되기' 프로젝트 등 청년 문화 활동가들의 창의적이고 유쾌한 성과를 만들어 냈다.

이번 공모는 전남에 거주하는 만 45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그룹별 300~500만원의 지원금을 차등 지원하고 월 활동비 160만원을 5개월간 지원한다.

청년이 주체가 돼 생태위기, 지역 소멸 등 지역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공동의 가치로 만들어내는데 목표를 두며 프로젝트를 추진할 예정이다.

프로젝트에 지원할 수 있는 주제는 전남 또는 22개 시·군 또는 295개 읍·면·동 또는 해당 마을에서 지속적으로 고민하는 지역문제, 생태위기, 지역소멸 등 국내·외 이슈인 ESG 관련 주제, 이웃 간 소통단절 해결, 학교폭력 예방, 야생동물 보호, 다문화가정 자녀 차별 예방방안, 귀촌인의 지역 적응 도움 등 사회적 가치 관련 주제다.

1차 서류 심사로 40명의 프로젝트 활동가를 선발, 한달 간 교육과 리서치, 공유회 등을 거쳐 2차 선정 심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다. 최종 15명의 청년을 선정해 관심 주제의 문제를 새로운 문화적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하는 시도를 지원하며 전남 청년 문화 기획자들의 활동 가치를 더욱 넓혀갈 예정이다.

사업 접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을 통해 진행된다.

김은영 대표이사는 “이번 공모가 청년들이 문화 주체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다경 기자 alsqsl94@gwangnam.co.kr